

종교개혁의 유산과 한국교회의 과제: 역사학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김중락(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I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미래지향적이며 과거를 쉽게 망각한다. 그러나 과거를 망각하고도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 작가 엘리 비젤(Elie Wiesel)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증언적 작품으로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경험을 말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인류는 홀로코스트를 망각할 만큼 여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독일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의 수도승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95개조를 내건지 500주년이 된다. 우리가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을 망각할 여유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종교개혁은 유쾌하지 못한 과거 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기억이 아니라 계승해야 할 그 무엇이 있음을 보여준다.

루터의 95개조 이후 서구 사회는 100년 이상 종교개혁이라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고, 종교개혁은 교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스 정교와의 분리 이후 거의 1000년 동안이나 하나의 조직이었던 서방교회는 분리되어 각국의 교회로 분리되었고, 교리와 예배하는 모습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종교개혁은 단지 서구 기독교회의 조직과 교리 그리고 예배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문화 그리고 정신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서구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각 교회는 세상과 우주에 대한 시각도 다양한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에 대해서, 경제행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게 만들었다.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의 개혁으로만 볼 수 없는 거대한 사회개혁운동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제학문의 주요 연구 주제로 인정되어 왔다. 역사와 신학 분야의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490편, 1970년대 449편, 1980년대 656편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통계는 563편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이나 역사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본 연구자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사학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러면 역사학 분야에서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그 유산은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단지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 서술사적 접근을 벗어나 종교개혁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 특히 종교개혁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화사를 저술한 철학자 볼테르(Voltaire)는 종교개혁을 “로마가톨릭교회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프랑스 역사학자 귀조(Francois Guizot)는 ‘인간 이성을 해방시키고자 한 웅대한 노력’으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랑케(Leopold Von Ranke)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가장 심오한 정신혁명’으로, 그리고 20세기 위대한 독일의 역사학자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는 “근대유럽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정신 운동의 하나”로 보았다. 일부 학자들에게 종교개혁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을 도운 사건이었다. 독일의 종교사회학자인 막스 웨버(Max Weber)는 종교개혁을 “세상을 깨운 위대한 역사적 과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법과 이해하는 법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사상, 즉 예정설과 직업소명설 등은 세속적 성공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탄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웨버의 명제는 영국의 토니(Rodney Tony)의 영국자본주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웨버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하이델베르크 신학자 트뢰츨취(Ernst Troeltsch) 역시 그의 저서 *Protestantism and progress*에서 종교개혁을 비록 간접적이고 우연적이지만 근대화의 주요 요소였다고 주장하였다.¹⁾

종교개혁의 영향은 인간의식과 과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문화사가인 키이스 토마스(Keith Thomas)에게 종교개혁은 종교를 의식화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일련의 내면화된 신념으로 변모시킨 것이다.²⁾ 즉 미신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이다. 신비로부터의 해방은 과학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은 과학혁명의 시기였다. 이 시기 물리학, 천문학, 생리학, 해부학, 수학 등은 그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혁명적인 발전을 기록하였다. 과학혁명은 종교개혁으로 성립한 프로테스탄트의 세계관에 큰 빛을 지고 있다. 과학혁명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그 관계가 단순한 개연성 이상임을 말해준다.

오래전에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은 잉글랜드의 광범위한 프로테스탄트를 청교도로 규정하고 이들의 청교도 윤리가 과학의 공리적이고 경험적인 세계관과 일치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³⁾ 그의 명제는 네덜란드의 역사가 호이카스(Reijer Hooykaas)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주장되었다. 호이카스는 그의 저서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에서 16-17세기 프로테스탄트 세계관과 과학 사이에는 철학적 또는 사회학적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근대과학은 논리학, 수학과 관찰을 통해 자연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강조한 그리스-로마적 전통에 기초해서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은 자연을 피조물, 즉 기계론적인 창조적 질서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육체적인 노동이나 과학적 직업을 하나의 성직으로 보게 만들었다. 호이카스는 이러한 세계관이 널리 전파된 유럽대륙의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잉글랜드에서 과학의 발전이 집중되었음을 지적하였다.⁴⁾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크리스토프 힐(Christopher Hill)은 그의 저서 『잉글랜드 혁명의 지적 기원』(*Intellectual Origin of the English Revolution*)에서

1) Ernst Troeltsch, *Protestantism and progress: the significance of Protestantism for the rise of the modern world*, ed. B. A. Gerrish (Philadelphia, 1986; first English edn 1912).

2) Keith Thomas, *Religion and the decline of magic* (1971)

3) Robert K. Merto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in Seventeenth Century England", *Osiris*, 4 (1938), p. 473.

4) Reije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2000), pp. 135-140.

청교도와 근대과학 사상은 다함께 유사가톨릭사상(the crypto-Catholicism)과 반과학사상(obscurantism)에 대해 발전해왔음을 지적하였다. 힐은 이를 증명하고자 잉글랜드 그레삼 칼리지에서 그레삼 교수직(the Gresham Professorship)을 역임한 헨리 겔리브란드(Henry Gellibrand)와 사무엘 포스터(Samuel Foster)와 같은 과학자들의 청교도 정신에 주목하였고, 청교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관계시켰으며, 개인적 신앙경험을 강조한 청교주의와 관찰과 실험을 강조한 베이컨의 사상을 연결시켰다.⁵⁾

종교개혁의 유산이 가장 분명한 영역은 정치였다. 16세기 유럽 국가들은 절대왕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절대왕정은 국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국왕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국왕은 통치의 잘잘못에 대해 오직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지므로 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왕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왕권신수설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왕권신수설을 부인하고 근대 시민사회로의 길을 연 것이 종교개혁사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세기 장로교회의 언약사상에 큰 빛을 지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커피(John Coffey)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기반 사상은 계약사상이고, 계약사상은 17세기 장로교의 언약사상에서 유래하며, 언약사상은 칼뱅파 종교개혁의 핵심이다.⁶⁾ 이러한 폭군과 전제왕권에 대한 칼뱅파 저항이론은 프랑스 위그노 이론가들에게 크게 수용되었다. 후일 ‘국왕시해자들(Monarchomachs)’이라 불린 이들 가운데는 *Francogallia* (1573)의 저자 프랑소와 핫맨(François Hotman)과 *Right of Magistrates* (1574)의 저자 데오도르 베자(Theodore Beza)가 있었다.⁷⁾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스테파누스 유니우스 부르투스(Stephanus Junius Brutus)라는 필명을 가진 프랑스 위그노 이론가의 『폭군토벌론』(*Vindiciae contra tyrannos*, 1578)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문헌의 저자는 폭군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주장하고 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즉위시에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만일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언약의 위반이며, 언약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시각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위그노의 저항사상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저항이론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조지 뷰캐넌(George Buchanan, 1506-1582)은 그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De Jure Regni Apud Scotos*, 1579)에서 메리(Mary) 여왕이 폐위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그노 이론가들의 입장을 스코틀랜드 상황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장로교 저항이론을 가장 정교하게 수립한 인물은 17세기 중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특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였다. 러더포드는 그의 유명한 저서 『법과 군주』(*Lex, Rex*, 1644)에서 국왕과 신민이 어떻게 언약관계에 들어갔으며, 언약의 위반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제시하였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왕 찰스 1세가 저항을 받은 것은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⁸⁾ 이처럼 언약을 파기한 국왕에 대한 무력저항은 장로교회의

5) Christopher Hill, *Intellectual Origin of the English Revolution* (Oxford, 1965), p. 113.

6) John Coffey, *Politics, Religion and the British Revolutions: the mind of Samuel Rutherford* (Cambridge, 1997).

7) 위그노 저항사상은 1572년 성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the Saint Bartholomew's Day Massacre) 이후 더욱 정교화되었다. 프랑소와 핫맨(François Hotman)은 *Francogallia* (1573)에서 로마의 정치이론을 빌려 “신민이 국왕을 세우거나 제거할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베자는 *Right of Magistrates* (1574)에서 폭군에 대해서는 개별 신민들 하급 관리에게 상급관리의 제거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하급관리는 그렇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8) 『법과 군주』(*Lex, Rex*, 1644)는 1644년에 출판된 John Maxwell의 *Sacro-Sancta Regum Majestas: or the Sacred and Royal Prerogative of Christian Kings*에 대한 답변서 형식이다. 러더포드는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저항이론을 정교화 한 것이지만 그 이전의 정치이론을 국민계약과 결부시켜 이를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존 로크의 정부론이 러더포드의 영향을 받았음은 너무 분명하다. John Sanderson은 『법과 군주』를 가리켜 “가장 포괄적인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칼뱅파가 전파된 모든 곳에서 혁명이 있었음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교회의 구조와 모습뿐 아니라 서구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큰 방향과 추진력을 제공한 사건이었다. 종교개혁은 서구의 정치와 사회구조 그리고 경제를 바꾸었으며, 사고와 문화를 바꾸었다. 또한 종교개혁은 서구사회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프로테스탄트의 확산과 함께 종교개혁의 유산은 지구상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⁹⁾

III

그러면 종교개혁이 이루지 못한 것, 미완의 개혁은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유산에 대한 역사가들의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에 활동하였던 저명한 스위스 종교개혁사가 메를 도비뉴(J. H. Merle d'Aubigné, 1794-1872)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사 연구에 기초를 남긴 도비뉴는 종교개혁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¹⁰⁾ 그에게 있어 16세기 종교개혁은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었다. 광범위한 개신교 학자들의 존경을 받은 도비뉴의 입장은 널리 수용되었다. 비록 도비뉴처럼 노골적의 신의 섭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사가들은 각국의 종교개혁의 연구에서 도비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사는 교황과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대립을 하나님과 악마의 대립으로 본 엘리자베스 시대의 존 폭스(John Foxe)의 『순교자 열전』(Book of Martyrs)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그리고 17세기 스코틀랜드 주교이자 역사가였던 길버트 버넷(Gilbert Burnet)의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ngland*는 반가톨릭 입장에서 잉글랜드 종교개혁과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의 성공을 묘사하였다. 잉글랜드 종교개혁가들에 대해 상당수 전기서를 남긴 18세기 초 역사가 존 스트라이프(John Strype)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¹¹⁾ 이들에게 있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대중적 지지위에 가톨릭의 음모와 싸워 승리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가톨릭 진영의 종교지도자들과 역사가들에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개혁'(reformation)이 아니라 '개악'(deformation)이었다. 19세기 가톨릭 신학자이며, 역사가였던 뢰링거(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는 루터와 멜란크톤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직접적인 언급을 이용하여 독일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¹²⁾ 뢰링거에게는 그들의 일시적 탄식이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들렸음에 틀림없다. 뢰링거의 주장은 19세기 말의 또 다른 독일의 역사가 요하네스 얀센(Johannes Janssen)의 16권 분량의 저작 *History*

저항의 정당화 이론"이라고 칭하였다. Sanderson, "Conrad Russell's Idea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4 (1993), 94.

9)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손봉호 외,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예영, 2012)를 참조하라.

10) 도비뉴의 기념비적인 업적은 1853년에 완성된 5권으로 구성된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와 1878년에 완성된 8권(마지막 3권은 사후 출판)의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urope in the Time of Calvin*이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것은 후자이다.

11) 존 스트라이프는 Thomas Cranmer, Sir Thomas Smith, John Aylmer, Sir John Cheke, Edmund Grindal, Matthew Parker, John Whitgift 등에 대해 전기서를 남겼고, 사료중심의 *Annals of the Reformation in England* (4 volumes: vol. I 1709-1725; vol. II 1725; vol. III 1728; vol. IV 1731, 2nd ed. 1735, 3rd ed. 1736-1738)를 남기기도 하였다.

12) 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Die Reformation, iAre Entwicklurlg und iAre Wirkungen im Umfange des lutherischen Behenntnisses*, i (Regensburg, 1846), pp. I-408.

of the German People at the Close of the Middle Ages에서도 재현되었다.¹³⁾ 안센은 ‘루터파 이단’ 때문에 독일의 사회적 지적 상황이 크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⁴⁾

독일 종교개혁에 대한 최근 역사학계의 평가는 도비뉴보다는 뮐링거와 안센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하다. 1975년 독일 종교개혁의 성공여부를 논한 제랄드 스트라우스(Gerald Strauss)는 프로테스탄트 문헌을 이용하여 1570년대 작센 선제후국(Electoral Saxony)의 농촌교회들의 상황이 종교개혁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교회 출석율은 낮았고, 교리 교실은 더 열악”했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낚시를 간 자들이 더 많으며, 설교가 시작되면 절반이 걸어 나갔고, 사람들은 목사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¹⁵⁾

로버트 스크라이브너(Bob Scribner)의 연구도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스크라이브너에 따르면 종교개혁의 영향은 교리나 신학에서와는 달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비록 종교개혁이 일부 영역에서 신비적인 요인을 추방하는 데 성공적이었지만 대부분의 일상에 있어서 중세교회와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가톨릭과의 단절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교의 새로운 신비적 요소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¹⁶⁾ 그리고 스크라이브너는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용된 패러다임에 불합치되는 모순 요소를 고려해서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건설해야 하고, 모순과 오해를 가득한 보통 신자들의 종교적 경험과 행습을 포함하는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를 써야 한다.¹⁷⁾

스크라이브너의 제자인 울린카 루블랙(Ulinka Rublack)은 그의 *Reformation Europe*에서 신교가 16세기, 17세기 세계를 깨우기보다는 오히려 1650년대까지 중세의 성례적 우주를 더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역사가들은 17세기를 벗어나 심지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도 기적, 귀신, 천사 등 미신적인 요소가 신교도 문화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긴 종교개혁(the Long Reformation)’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¹⁸⁾

이같은 새로운 해석은 루터의 종교개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최근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많은 문헌에 의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더 큰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 1838년에 문을 연 공공기록보관소(the Public Record Office) 덕분에 종교개혁 시기 전국의 모든 기록을 쉽게 볼 수 있

13) Johannes Janssen, *History of the German People at the Close of the Middle Ages*, trans. A. M. Christie, 16 vols. (London, 1896-1910).

14) 뮐링거와 안센의 자료는 후일 신교 역사가인 빌헬름 월터(Wilhelm Walther)에 의해 부정확하거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발췌로 주장되었다.

15) Gerald Strauss, "Success and Failure in the German Reformation", *Past & Present*, No. 67 (May, 1975), pp. 30-63

16) Robert W. Scribner, 'The Reformation, popular magic and the "disenchantment of the world" ',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3 (1993), pp. 475~945; idem, 'Reformation and desacralisation : from sacramental world to moralised universe ', in R. Po-Chia Hsia and R. W. Scribner, eds., *Problems in the historical anthropology of early modern Europe* (Wolfenbüttele Forschungen, vol. 78, Wiesbaden, 1997).

17) Scribner, "The Reformation, popular magic", 494.

18) Ulinka Rublack, *Reformation Europe* (Cambridge, 2005).

게 되었고, 실증의 길도 열린 것이다.

제랄드 스트라우스와 같은 방법으로 종교개혁 직후 신교지도자들의 언급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통해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성패를 가늠해보고자 한 크리스토퍼 헤이(Christopher Haigh)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성패에 대한 판결은 보류했지만 그 함축적 의미는 분명하다. 헤이에 따르면 종교개혁 직후에 대다수 아이들은 교리문답에 대해 무지했고, 목회자들은 무능했으며, 성도들은 무관심하였고, 많은 개혁자들은 실패를 자인하였다.¹⁹⁾ 스트라우스에게 청교도 목회자 윌리엄 퍼킨스(1558-1602)의 언급은 중대한 가늠자로 보였다.

우리는 우리시대의 공통의 죄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 종교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속임을 당했다. 지금의 우리는 20, 30년 전의 우리가 아니다. 지금의 세상은 무신론자들, 미식가들, 자유주의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종교가 없는 자들로 가득 차있다.²⁰⁾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 왕립석좌교수(Regius Professor)를 역임한 에이몬 더피(Eamon Duffy) 교수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종교개혁의 성공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더피에게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수많은 대중들의 저항을 받은 운동이었고, 성공적이지 못한 사건이었다. 대중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한 노선을 따르기 보다는 중세적 가톨릭 신앙과 생활과 문화에 집착하였고, 수도원의 해산과 중세음악과 도서관의 파괴는 종교적 격변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재앙으로 여겼다고 주장한다.

종교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이러한 연구들의 약점은 분명하다. 교인들이 순종적이지 못하며,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비난은 종교개혁 직후 뿐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불평거리다. 그들의 언급을 상황과 분리해서 사료로 이용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정주의자들의 연구는 실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긴 종교개혁’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성공을 주장하는 도비뉴의 제자들이나 종교개혁의 실패를 함축하는 수정주의 역사가들 모두 종교개혁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단견에서 출발한다.

종교개혁은 단회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이다.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를 이어받으려 한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중세적 전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은 단지 교회만의 수정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이고 ‘긴 종교개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탄식한 것은 종교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죄 된 속성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그들의 탄식 속에는 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이 지속되길 바라는 소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IV

19) Christopher Haigh, "Success and Failure in the English Reformation", *Past & Present*, No. 173 (Nov., 2001), pp. 28-49.

20) Haigh, "Success and Failure", 29에서 재인용.

21) Eamon Duffy, *The Stripping of the Altars: Traditional Religion in England, c.1400 to c.1580* (1992)

그러면 ‘사회개혁’과 ‘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들의 결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무엇인가?

교회사를 두고 살펴볼 때 교회의 개혁운동은 항상 존재하였다. 불행히도 교회의 오류는 단번으로 끝나지 않은 현상이다. 중세에 나타난 수많은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6세기의 베네딕트 수도회가 그러했고, 10세기의 클뤼니 수도회, 11세기 시토 수도회,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그러하였다. 이들은 설립 초기 놀라운 개혁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 조직들은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스스로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토인비가 말한 성공적 응전의 업보(nemesis)일까? 모든 개혁세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루터파 교회와 칼뱅파 교회 그리고 잉글랜드 교회(성공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관료적 종교개혁(magisterial reformation)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민중이 일으킨 재세례파(anabaptists)의 후손들은 어떨까?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은 지금 무엇이 남아 있을까?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과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폐족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처럼 꼴상 사납게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다. 전투적 칼뱅파는 야성을 잃었고, 루터파는 여전히 권력에 종속되어 있으며, 재세례파의 후손들은 방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사회개혁을 논할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긴 종교개혁’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강단은 복음과 진리 대신 억지광대놀음과 무례로 가득 차 있다. 극단적 근본주의는 모든 국민과 타종교인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회의 재정은 사치와 내부 잔치로 낭비되고 있으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은 커녕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오염을 어찌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성직주의의 대두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사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규정하고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인 양 행동한다. 시각 매체의 기독교 관련 방송을 보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이 반대하던 화려하고 권위적인 성직복을 입고 출연한다. 검손과 근검의 표시로 장식 없는 검정색 가운을 입고 다녔던 종교개혁시기 목회자들과는 그 출발이 다르다. 강단에서도 그들은 성도들의 지적자살을 유도한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가톨릭 학자들의 평가처럼 종교개혁은 ‘개혁’이었나?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었나?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한국교회에는 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하나있다. 바로 ‘개혁주의’라는 말이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마도 ‘개혁주의’란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보다 ‘개혁주의 신앙’ 또는 ‘개혁주의 교회’ 등의 수식어로 사용된 경우가 흔한 것을 감안할 때 종교개혁이후 서구에서 신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된 ‘reformed faith’ 또는 ‘reformed church’를 번역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개혁주의’는 ‘개혁’을 의미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문자 그대로 ‘늘 개혁하는 정신’ 즉 ‘reformism’의 번역일 수 있다는 것이다. ‘늘 개혁하는 정신’은 17세기 화란 경건주의자인 요도쿠스 로덴스테인(Jodocus van Lodenstein, 1620-1677)의 언급인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말로 풀이될 수 있다.²²⁾ 17세기 화란 경건주의자들에게 진정한 개혁은 교

22) Horton, M., 2009, ‘Semper reformanda’, in *Tabletalk Magazine*, 01 October, viewed 21 November 2014, from <http://www.ligonier.org/learn/articles/semper-reformanda>. 칼 바르트

리의 개혁이 아니라 삶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칼뱅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찾아 볼 수 있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었고, 교회를 성화시키고 말씀의 물로서 씻기며, 흠과 주름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시고자 한다. 교회는 흠없이 거룩해야 한다. -- 교회의 거룩함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며, 교회의 거룩함은 날마다 전진하지만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했다”²³⁾

이는 칼뱅이 자신의 개혁교회가 완전한 개혁교회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16세기 후반의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도 자신들의 교회를 “the best reformed church”라고 묘사하였다. 그들도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완전히 개혁된 교회”라고는 하지 않았다. 17세기 2세대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 받은 것이다. 요컨대 ‘늘 개혁하는 정신’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그들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개혁교회는 완전히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늘 개혁하는 정신’을 가진 개혁교회였다. 즉 ‘개혁주의’ 교회였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진정한 유산이다.

개혁주의,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눈앞에 둔 한국교회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가득 차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는 500년 전 루터가 경험한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의 한국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모든 상황이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한국교회에는 기회가 남아있다. 분열을 논할 때가 아니다. 에라스무스와 같이 우선은 교회의 분열보다는 교회내부에서 개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에라스무스는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 알을 부화시켰다”란 말처럼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 같은 이들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가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자들이다. 지금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 루터와 칼뱅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혁주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도 감사한 일이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타락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한때 개혁을 부르짖던 이들도 결국은 타락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히 따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잠잠했다면 개혁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단회로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현재진행형이다.

(Karl Barth, 1886-1968)도 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
23) Jean Calvin, *Institutes*, 4.1.17